

동아시아 국제 해상무역을 평정했던 해상왕 ‘장보고’

전근대 시대에 한 나라의 부는 자연적 조건에 제약을 받게 마련이다. 우리 나라는 산악지형과 함께 해안선이 발달한 지형적 조건 때문에 바다는 중요한 삶의 터전이었다.

조선후기 실학자 정약용은 《경세유표》에서 “우리 나라는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고 강과 바다에 다니는 큰 배, 작은 배는 천으로 만으로 헤아린다. 나라에는 수레가 없고 암소를 흘레붙이고 말을 타서 달리는 풍속이 없다. 일용백물(日用百物)의 운반을 배 아니면 메어 나르는 두 방법 뿐이니 배의 쓰임이 이처럼 전적이고 긴요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우리 나라는 바다에서 불세출의 세계적 영웅 두 명을 배출했다. 조선시대의 명장 이순신과 신라시대의 해상 무역왕 장보고(?~846)가 그들이었다.

이순신이 민족을 위기에서 구한 군사적 영웅이었다면, 장보고는 동아시아의 해상권과 국제무역을 주름잡은 해신(海神)으로 새삼 주목받고 있는 인물이다. 말년에 정치적 야심으로 끝내 몰락하고 말았지만, 장보고는 주일 미국대사를 역임한 바 있는 동양학계의 거목 라이샤워가 평가한 것처럼 ‘해양상업 제국의 무역왕’으로서 국제적 가치를 인정받고 있다.

그러나 명성에 걸맞지 않게 장보고에 관한 기록은 빈약하기 짝이 없다. 그의 태생지는 분명하지 않지만 ‘해도인(海島人)’이라고 밝혀져 있어 해안출신임이 분명하다.

그의 유년시절은 공백으로 남아 있을 뿐이고, 청년기부터 그의 존재가 드러난다. 그는 동향 후배 정년과 함께 당나라에 진출해 서른 살 무렵 서주(徐州) 무령군 소장(武寧軍 小將)이라는 군직(軍職)에 올랐다. 당시 당 조정에 반기를 든 이사도를 진압하는 데 혁혁한 전공을 세운 것을 인정받아 소장직에 승진한 것으로 보인다. 이런 군사전략가적 소양이 후일 그가 당대 최고의 국제 해양무역가로 입신하는 기반이 되었다.

당시 동아시아의 해상에서는 해적들이 출몰하고 있었다. 그들은 약탈적인 노예무역에 종사하며 당 조정을 괴롭히고 있었다. 장보고는 군복무 시절 동료들이 해적선에 끌려와 매매되는 현장을 목격하고 의분을 느꼈다. 그는 828년 4월에 중국에서 돌아와 흥덕왕을 알현하고 병사 10000명을 지원받아 완도에 청해진(淸海鎭)을 설치했다. 청해진은 국가의 공식기구라기보다는 그의 사병집단적 색채가 짙었다. 아마도 그의 강한 해양 세력기반을 신라 조정에서 암묵적으로 승인했기 때문에 이런 예외적인 군사기지 설치가 가능했을 것으로 보인다.

장보고는 당시 동아시아 해상교통의 요충지였던 청해진을 거점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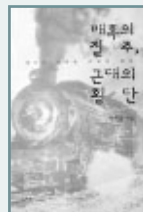
재당(在唐) 신라인 사회와 재일(在日) 신라인 사회를 유기적인 네트워크로 묶는 거대한 해상 무역망을 구축했다. 동아시아 삼국의 제해권은 그의 압도적인 헤게모니 아래 놓이게 되었다. 조선술과 항해술에 능했던 장보고와 그 휘하의 신라인들은 나당일 삼국의 중개무역을 독점하며 막대한 부를 축적했고 이것을 기반으로 중앙 정치 무대를 넘보는 세력으로 성장했다.

장보고가 이끈 해상왕국의 몰락은 직접적으로는 중앙정치에 진출하려는 야망 때문이었다.

그는 후일 신무왕으로 등극한 우정의 정치 쿠데타를 도울 때 자신의 딸을 태자비로 맞아들일 것을 조건으로 내세웠다. 그러나 신무왕의 때 이른 죽음과 뒤를 이은 문성왕대에도 장보고의 요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841년 장보고의 세력에 위기의식을 느낀 신라 조정은 염장이라는 자객을 파견해 장보고를 암살해버리고 말았다.

장보고가 암살당한 뒤 한 동안 청해진은 염장의 통제 아래 들어갔다. 장보고의 심복들은 반란을 일으키려 했으나 실패하자 중국이나 일본으로 떠나버렸다. 장보고를 추종했던 완도 주민들은 염장의 압제에 저항했으나 역부족이었다. 결국 851년 신라 조정은 청해진을 폐쇄하고 그곳 백성들을 전라북도 김제로 집단 이주시켜버렸다. 이에 따라 동아시아 국제무역항의 거점으로서 번성했던 청해진은 그 운명을 다하고 말았다.

바다를 장악하는 자가 세계를 제패한다는 공식은 동서고금의 역사가 입증하고 있다. 장보고는 천혜의 바다를 근거로 입신하는 데는 성공했지만, 정치적 야망이라는 덫에 걸려 무너지고 말았다. 그의 상인정신이 권력욕에 무릎을 꿇고 만 것이다. 우리는 장보고를 통해 기업가정신의 융성과 가치는 정치권력과의 창조적 긴장관계에 놓여 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된다. **KOVN**



박천홍의 새책 _ 우리의 근대는 철도에서 비롯되었다. 그 기적소리는 한반도를 어떻게 바꾸었을까. **《매혹의 질주, 근대의 횡단》**(산처럼 펴냄)은 철도는 근대의 상징을 통해 한반도가 강제로 떠안은 근대의 풍경을 생생하게 묘사·해석한다.